

碩士學位論文

제주 지역별 아동들의 미술관심도에 관한 연구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8·9세 아동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용환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정민경

2002年 6月

제주 지역별 아동들의 미술관심도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8·9세 아동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김 용 환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6月 일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정민경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년 6월 일

審査委員長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초록>

제주 지역별 아동들의 미술관심도에 관한 연구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8·9세 아동을 중심으로)

정 민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용 환

제주는 지리적 여건상 독특한 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자연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주변환경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주변환경이 아동에게는 기본적인 사회의 揚으로서, 아동의 정서는 생활공간인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들의 정서와 욕구인 아동화는 그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특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지역 환경에 따른 제주지역별 아동화의 표현 특징 및 아동의 미술관심도를 비교함으로써, 제주지역에서의 환경 적 차이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능력과 아동의 세계를 이해하고 미술의 관심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제주지역의 시내지역과 시외지역(금악·남원)으로 나누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8·9세 아동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하여, 아동화와 설문지를 도구로 하여서 분석 기준에 따른 분석하고 백분율로 통계 처리하였다.

비교한 결과를 분석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제 선호에 있어서 제주시 지역과 남원·금악 지역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 면에서도 제주시 지역은 인공적인 미 즉, 생활의 경험 등을 다양하게 표현했으며, 개성이 강한 명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남원지역은 자연스러운 표현과 더불어 순수한 면과 다양한 표현방식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금악 지역은 소재가 자기가 사는 모습을 위주로 그렸으며 주위의 주변환경을 많이 그렸다.
2. 색채표현에 있어서 제주시 지역 아동이 다양한 색상을 진하게 색칠했으며 원색계열 색을 많이 사용했고 금악과 남원지역 아동들은 초록색, 파랑 색 계열을 많이 사용했으며 색칠도 제주시 지역보다 희미하게 했다.

3. 구도 면에서 제주시 지역 아동은 화 지를 꼭 차게 그리고 동작을 다양하게 그렸으며, 금악과 남원지역 아동은 여백이 있고 동작을 단순하게 그렸다.
4. 설문지 조사에서 아동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시 지역과 남원·금악 지역 아동들이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고 다소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상상화 그리기를 좋아하다고 대답했으며 만화 그리기 동화 읽고 그리기, 주변환경도 좋아했다. 특히 만화책에 관해 제주시 지역 90.3%, 금악 93.1%, 남원 86.2%로 높은 비율로 좋아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만화책에 관해 금악, 제주시, 남원지역 아동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5. 색채에 대한 관심도는 제주시, 금악, 남원지역 아동들이 남자는 파랑, 여자는 노랑을 선호했다.

제주 지역별 아동들의 미술 관심도를 조사해본 결과 전지역이 미술 그리기를 좋아하고 있으며 흥미 있어하고 있다.

제주시·남원·금악 지역의 아동화의 특징은 제주시지역의 아동의 그림이 내용을 많이 묘사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색깔로 화려한 표현을 하고 잘 그리려는 욕구가 담겨있고 개개 인마다 개성이 강했다.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아동화를 비교할 때 색깔의 사용, 색의 농도, 주제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제주시·남원·금악 이라는 지역 환경이 갖는 서로 다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환경적 요소가 갖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영향받은 미적 발달요인이나, 정서함양의 저해요인을 잘 검토하여 아동이 창조적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장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목 차

초 록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2
II. 본 론	4
1. 아동미술의 특성	4
1) 아동미술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	4
2) 아동화의 특성	5
2. 아동화를 통해서 본 지역별 분석	15
1) 환경 조건과 아동화	15
2) 구도의 표현	18
3) 배경처리	19
3. 설문지를 이용한 지역별 분석	27
III. 결 론	48
IV. 참고문헌	51

부 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란 생활 공간 속의 심리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은 지각적 영역과 내적인 영역으로 분화된다.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제 1차 적 환경, 즉 생활공간과 접하면서 자라게 되므로 그들의 정서는 심리적 문화적 환경 뿐 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아동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종류로 표현하게 되는데 아동에게 있어서는 상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아동의 그림은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의 내면 세계인 흥미, 욕구, 성격 및 지적능력의 표현이며 또한 성별, 나이, 주변 환경 등의 외부 환경이 그림을 통해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동화는 언어의 표정이고 아동이 획득한 개념과 생활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며 창조적 사고와 욕구표현인 동시에 주거환경에 대한 자기태도의 반영인 자아상이므로 그들의 일상으로 보아야 한다.”¹⁾

아동은 시각적 언어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 감정의 표현 및 개개인의 창조적 특징을 그림을 통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획일화되고 단일화되어 가는 아동의 정서는 아동화를 통해 올바르게 파악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아동의 내적·외적환경을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래에는 문화적 환경보다 생태적

1) 김재은,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 교육과학사 1981), pp.26~36.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주변환경이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하고 있다.”²⁾

본 연구는 제주환경으로서 키워져 가고 있는 시 지역과 금악과 남원 지역이라는 주거형태가 갖는 주변환경의 영향에 따라 아동의 미술관심도 및 회화 표현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연구하는데 필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제주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표현된 아동화의 표현 특징 및 아동의 미술관심도를 비교 연구해 봄으로써, 제한된 지역범위 내에서의 환경적 차이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능력과 아동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제주 주거지역을 시 지역과 시외 지역 즉, 금악과 남원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거주하는 8·9세 아동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변환경에 따른 회화 표현에 있어서 그 특징 및 아동의 미술관심도의 차이를 알아본 것으로서, 아동화와 조사지를 연구도구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변환경 차이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을 목표 표출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주 제주시 지역 중심으로 주변 환경이 비슷한 지역과 시외지역은 바다가 잘 보이지 않는 금악 지역과 바다와 산이 다 보이는 남원 지

2) 김진규, 「아파트 가정과 단독 가정의 환경차에 따른 아동 교육 과제 탐색 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미간행), p.9.

역으로 구분 시켰다.

각 지역 주거하는 8·9세 아동을 중심으로 <표 1>과 같이 선정해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지역 아동수	시내지역		시외지역				총 계
			남원		금악		
남	남:91	186	남:11	29	남:12	29	244명
여	여:95		여:18		여:17		

<표 1>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문헌과 각지역 대상아동의 설문지와 자유화로 하였고 화 지의 뒷면에 제목을 기록하게 하여 그림 분석에 참고하였다. 연구도구를 자유화로 한 것은 아동에게 어떤 통제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표현이 잘 나타나서 그림에 반영 될 수 있고, “자유화를 이용한 분석방법이 그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³⁾

화 지의 크기는 26cm×36cm(8절지)로 하였다. 왜냐하면 “화 지가 크면 아동들에게 색채가 없는 공백이 많아지며 팔과 손의 운동이 자유롭지 못해 풍부한 상상에 방해가 되고, 표현과 구도에서도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⁴⁾ 그러므로 적당한 화 지는 8~9세 아동이 8절을 그리는 시간이 약 40분 소요되므로, 초등학교 1시간 수업이 40분으로 측정되어 있어 안정감과 균형 잡힌 그림을 위해서 8절지로 정하였다.

설문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 아동들에게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도록 11항 문항을 주었으며 5지 선 답을 했다.

3) 김재은,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 진단」 (서울 : 교육과학사, 1981), p.52.

4) 김 정, 「아동의 미술 교육 연구」 (서울 : 창지사, 1989), p.320.

Ⅱ. 본 론

1. 아동미술의 특성

1) 아동미술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

아동자신의 생활이고, 표현이자 발달의 반영이며 기록인 아동의 미술표현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역의 성장과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므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가 수반된 고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미술활동은 아동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육활동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미술의 교육적 가치를 분석해 보면, 첫째,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며 그 자체를 즐기기에 때문에 그리는 동안 아름답게 느끼고 꾸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심미적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미술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므로 긴장을 풀 수 있고 만족감을 얻게 되어 감수성이 풍부해진다.

셋째, 그림 그리기, 가위질, 뜯어 붙이기 등으로 손가락의 민첩성과 손목, 팔의 小 근육 운동기술 발달, 눈과의 협음을 통한 조화능력 등 신체의 감각향상을 도모한다.

넷째, 아동들이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림을 그리고 조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과 친구들의 활동을 비교하면서 관찰력과 평가법을 배우게 되며, 미술활동을 통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창조력을 기르게 된다.

아동미술교육은 위와 같은 네 가지 특성들을 조장해 주는 계기가 되므로

교육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어른들이 아동들에게 강요나 간섭으로 정도에 맞지 않는 지나친 미술교육을 시킨다면 아동들의 흥미나 요구는 말살되고 창조적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정신, 육체, 지적 능력, 창의력 등의 내적 힘과 육체적 조건 등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2) 아동화의 특성

아동화는 시각적이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 아직 개념적이며 아는 것, 기억하는 것, 흥미로운 것을 주관대로 전달하고 표현하며 나란히 늘어놓고자 한다. 처음에는 외부세계에 알리고 싶은 본능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동의 표현 속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찾는 방향의 표현과 그저 특정한 방향 없이 일반적인 감정을 외부에 나타내는 목적이 없는 표현으로 구별하면서 만족은 기쁜 상태가 되어 웃는 얼굴로 표현되고 볼 쾌나 고통스러운 상태는 우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그러나 유하다 든 가 불쾌하다는 상태가 본능적인 욕구하고 직접 관련치 않을 때도 있어 이런 때에 표현되는 감정의 상태를 정확히 짚 수 없으며 아동의 자유표현은 신체의 활동이나 정신 작용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치기 때문에 더욱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지는 요소는 지각의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연상에 의해서 좀더 많이 제시된다. 얼굴의 측면 묘사가 시작되고 원근법, 명암, 축도법 등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장식적인 묘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사물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

해 같은 것을 되풀이하여 그리는 반복현상이 나타나고, 아동들은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확대하고 생략하는 등 그들의 단순한 상징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한다.

주변환경에 예민한 감각은 사물의 외양과 사물을 보는 방식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이게 해준다. 사물의 외면과 내면의 형태 묘사가 시도되고 상징성이 후퇴되면서 점차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하려고 하고 표현에 있어서 유연성을 상실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객관의 사이에서 고민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기선을 갖게 되는데 이 기선은 29개나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구도가 나오게 된다.”⁵⁾

아동들의 그림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기 때문에 아동미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표현은 단지 내적인 것을 밖을 끌어내는 것만이 아니고 표현의 주체로서 밖으로 나타냄에 있어 주체의 자각 성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주체가 객체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 표현의 개성을 말하고 있다.

‘아동은 대상을 보고 그리려고 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상 기억의 영상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라는 말처럼 그들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경험되어진 인상은 대부분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환경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색채가 가지는 영역은 매우 큰 부분으로 접촉하는 모든 것에 색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색채는 감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에게 있어서는 더 예민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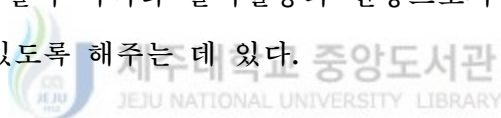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어하는, 활동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

5) 김 정, 「아동회화의 이해」 (서울 : 창지사, 1989), p.115.

지고 있다. 아동이 즐겨 그리는 그림이나 형태를 만드는 흙 놀이, 종이를 가지고 꾸미는 공작 등 조형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아동의 조형 활동은 고도의 정신적 힘이 요구되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언어 성숙이 이전 아동들에게 기억력, 판단력, 추리력, 관찰력 등을 길러주며 신체적, 정신적 발달은 물론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는 좋은 학습이 되기도 한다.

아동에게 있어서 미술이란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즐거움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물을 아름답게 느끼게 해주는 지적 도약에 뜻이 있으며, 그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도 하고 정서를 맑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은 재능교육으로서의 기능 발달이 아니라 놀이활동의 연장으로서 흥미를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



(1) 사고력, 상상력이 풍부한 아동

진실로 생산적인 지식의 교육은 전인교육에 있으며, 정보사회, 고급기술사회가 요구하는 사고력, 조직력, 상상력, 창의력 등의 이른바 고등정신과정과 새로운 문제를 찾아가는 발산적 사고를 말한다. 이들은 인간만이 능히 할 수 있는 지적작용이다. 간단하고 단순한 지적작용은 이제 컴퓨터가 다 해결해 준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박식주의, 대량암기주의 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메마르고 단편적인 교육, 일률적인 교육을 행하기가 쉽다. 머리의 발달만을 기하는 강제적 학습이나 강요된 지능개발은 아동들의 학습의욕과 흥미를 저하시키며, 신경질적인 아동, 낙제생, 열등생, 학습 혐오 자들을 낳게 된

다. 아동들은 학업성적, 그리고 외어야 할 규칙이나, 법칙에 매달려서 사고력, 추리력, 상상력을 희생시키고 있다. 니일(Neill)은 아동들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그릇된 것이며,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성숙과정의 시간을 주어서 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상상적인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상적인 탐구는 아동의 미술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육목적이 된다. 아동의 창조적인 작품 속에는 그들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 세계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자각이 형성될 수 있는 지적 개념이 들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지적 세계는 확대되고 또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동미술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한 켈로그(Kellogg)는 아동미술과 지적발달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미술활동은 아동들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키기도 하며 이러한 미술활동을 기초로 하여 아동들의 학습접근 능력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였다. 또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미술활동을 주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추천하였다. 즉, “읽기, 쓰기, 셈하기(3R’S)의 학습기능은 미술활동이 추가 되어 미술활동에 통합되는 교육과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⁶⁾ 그 이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알고 있는 것, 기억되는 것, 또는 느껴지는 것, 경험했던 것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술활동은 지적성장을 도모하고 인지적 발달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미술활동은 창조적 시 지각의 상상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미술은 하나의 감정 및 사상전달의 수단으로서 어린이에게 상상하는

6) 이해숙, 전개논문 pp. 3~4.

새로운 가능성을 감지하고 이해하게끔 도와준다고 랜싱(K. Lansing)은 말하였다. 그리고 가트셴크(D. Gotshalk)는 미술은 상상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⁷⁾ 그러므로 상상력, 사고력이 풍부한 지적능력은 수의 논리나 개념과 언어가 아니라 경험과 감각적,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며, 또 옛날의 경험을 되살려서 다시 재생시켜 적절한 변화와 창조적 표현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미술교육은 아동들에게 유연한 상상력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해주며 현재의 지나친 지적인 교육에 미적 체험을 제시해 주어 아동들의 교육을 더욱 더 유동성 있고 다양하게 이끌어 준다.

(2) 도덕적, 인간적인 아동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개개인의 마음은 복잡한 인간사회를 포상 하면서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독립된 사회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선과 악을 다같이 포함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도덕적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적 전락은 교육을 황폐화시키며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파탄의 위기로 몰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도덕성을 정의해 본다면 아주 초보적으로 내 자신과 내 욕심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과 공공의 생각도 하는 정신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규율이 희미해지고 서로 의심할 때 바로 불신사회가 조성되는 것이다.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교육목적이다. 지식주입 일변도를 지양하고 전인

7) 김춘일, 저 Ibid, p.19.


교육을 바라는 교육의도에는 반드시 도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은 실효 있는 도의교육, 가치관교육을 위해서 현 교육자체의 도덕성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는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마땅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관계로 변하고 있으며, 또 사회전반은 남과 공공을 생각하지 않은 독직, 부정, 무질서 등으로 만연되어 있다. 즉,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나 합리성을 지켜 줄 수 있는 양심이 점점 도태됨으로써 경쟁심, 물질탐욕, 이기적 행동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간 됨을 실현해 가는 자아실현의 길이 예술, 기술, 학문, 봉사 등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세와 권위를 위해서 일류대학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류전문가가 나올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다양한 출중자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 가치화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교육은 전인교육, 즉, 지·정·의·체(知·情·意·體)가 균형 잡힌 교육이어야 하며 이러한 인간교육을 받은 어린이가 도덕적으로도 정상적이고 건전한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다른 교육과는 달리 선한 일을 하는 덕성을 기르는 일이다.

좋은 미술작품은 좋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선한 마음은 미술교육을 통해서 길러 질 수 있으며 스스로 선하게 되고자 노력하게 한다. 플라톤(Platon)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도덕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예술가나 비평가, 미학자들 사이에 있어온 가장 활기찬 논제거리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를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대적 도덕주의와 절대적 심미주의로 나눌 수 있겠다. 절대적 도덕주의는 미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일종이라고 하는 도덕적 판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주장이고, 절대적 심미주의는 도덕적 판단은 예술과 전혀 무관하

다는 점을 견지하였다. “존. 러스킨(John. Ruskin)은 예술에 관한 도덕적 관심을 표방하는 현대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데, 그는 만일 제작된 작품이 실제로 신뢰할만한 가치를 지닌다면, 이것을 만든 영혼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셈이라고 하였다.”⁸⁾

예술활동은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을 포함하여 전체 인격을 향상시킨다. 예술은 선함과 올바름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한다. 인간이 예술에 종사할 때 올바른 행위를 깨닫게 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미술활동은 아동들에게 도덕적 감각과 미적 감각이 매우 긴밀하게 작용하게 하여 도덕적 지혜를 배우게 하고 조화로운 인간다움을 기르게 한다. 영악한 아동보다는 인간다운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술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호기심, 탐구심 있는 아동

아동들의 관심과 흥미는 자기주변의 가까운 곳에 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아동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모래, 진흙, 나무토막 등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며 거미줄, 벌레, 잎사귀 등을 관찰한다. 아동들은 또한 만들기, 부수기, 문지르기와 같은 놀이를 통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놀이를 하는 것이 아동들의 생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동들의 놀이는 자기주변에 있는 사상(事象)을 향하여 탐구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꾀하게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놀이란 무엇인가를 시행해 보고 추구해 보고 또 만족할 때까지 노력해 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바람직한

8) 뮐빈. 레이더와 버트람. 제섭 공저, 김광명역, 예술과 인간가치,
(서울 : 이론과 실천사, 1991), pp. 283~284.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아동들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개척하는 정신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탐색하고 실수, 과오, 반복의 과정을 거친다. “듀이(J. Dewey)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예술은 곧 경험이다라고 하였다. 즉, 미술교육에 있어서는 무엇 보다도 과정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⁹⁾ 어린이들은 그림 그리기를 통하여 사물현상이나 우주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계속 탐색해 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동을 얻게 되어 생생한 창조적 그림을 그리게 된다. 예를 들어 사생화를 그려봄으로써 자연이나 대상의 사물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고 이러한 활동은 바로 관찰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미적 관심은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보고들을 수 있는 곳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적 관심을 좀 더 생생한 가치의 미적 경험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호기심, 관찰력이 풍부해야 한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보다 풍부하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땐 늘 일어나는 똑 같은 일이라도 더 자세히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동들은 창조적 욕감이나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탐색하면서 그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들은 개념과 지식을 우연히 관찰하고 발견하게 된다.

미술교육은 개별적이며 아동들의 욕구와 만족에 따라 진행된다. 그래서 개인적 호기심의 유발이나 개인적 중요성의 부여, 개인적 흥미유발을 가져다준다. 외계(外界)나 현실을 탐색하는 일에 즐거움을 갖게 해 주고 탐색과 도전의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상황들을 관련지을 줄 알게 하고 자신의 과오를 수정할 줄 알게 한다. 우리가 아동들에게 읽기 교육이나 지식 습득에만 관심을 두고 자유로운 탐색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아동들은 어떠한 것도 해보려 들지 않을 것이며, 어른의 힘이나 답안지만을 통해서 정답을

9) 김춘일, 저, Ibid, p.270.

알아내려고 할 것이다.

아동들의 정신세계는 공상과 느낌과 모호한 인식과 미세한 지각으로 packed 있다. 미술교육은 이러한 아동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럴 때 미술교사는 아동의 흥미를 또 다른 필요한 개념으로 연결시켜 확대해 주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아동의 흥미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자극해 주어서 모든 지식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 역량과 높은 차원의 이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재능과 소질이 있는 아동

아동은 누구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생후 1년을 조금 지날 무렵부터 놀이의 형태로써 마음작용에 의해 예술적 표현활동을 하게 된다. 무엇을 만진다든지 손을 휘 져는 것은 물건을 포착하기 위하여 손과 눈의 협응에 의한 운동을 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조형활동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후 2세 경이 되는 어린아이는 종이와 그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언지 알 수 없는 것을 극적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른들은 이것을 단순한 근육활동의 결과로 보거나 무의미한 동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3세 짜리 어린아이들의 극적 그리기 속에서도 이미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 속에 작은 우주가 있어 그들의 정신발달의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어린이의 낙서 한 장, 그것이 아무렇게나 그려진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어린이의 내면세계가 들어 있다. 자신들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져 나오는 자발적인 그림이다.

건강한 신체에 손발이 자유로운 아동이라면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그리는 것뿐 만 아니라 그림책을 몇 번

이고 펼쳐보는 일도 좋아한다. 아동들은 누구나 다 독창적인 예술가이다. 어떤 그림도 똑같은 그림이 없을뿐더러, 자기 나름의 선, 형, 공간, 색채를 구사한다. 그런 점에서 아동의 그림은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화의 경우 어느 정도의 예술적 자각이 있는가는 확실치 않지만, 아동들에게 예술적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의 예술적 의식과 동일한 구조는 아니다. 그러므로 아동화를 성인의 예술적 의식에 기초하여 해석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일이다. 아동들은 예술적 자각으로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로운 생의 표현, 구속받지 않은 야성적 인간의 표현으로 그림을 그린다. 자기들의 정직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성인미술과 아동미술의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중 특별히 유별나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거나 잠재적으로 예술가 적 자질과 재능을 가진 아동들이 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의 영향이나 어린이의 건강, 내장기관에서 오는 모든 내부적 감각과 어릴 때의 환경, 경험 등의 외부적 자극에 의한 외부감각에 의해 천부적 재질을 타고 난 경우의 어린이들이다. 여기서 예술적 소질을 타고 나는 것이 유전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는 다분히 우생학적인 성격이라서 가름하기 매우 어렵지만, 결국 유전 쪽에 가까운 예술가 적 기질과 환경적 자극에 의한 예술가 적 품성이 어우러져야 만이 천재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가 탄생될 것이다.

미술교육은 미술적 천재를 길러 내고 찾아내어 그들을 미래의 예술가로 이끌어 주어야 하며 특수한 이론 및 지도 방법,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수준 높은 조기훈련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조기교육은 매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욕과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만화를 그리고 그림책을 모방하고 벌레나 동물들을 그리는 일들을 계속하더라도 순수하게 받아 들여야 하며 어떠한 전문적인 기능이나 기술을 원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직접적인 미술교육보다는 평생 느낄 수 있는 사물

에 대한 애정 및 그것을 표현해 보고 싶어하는 충동을 갖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큰 영향과 자극을 줄 수 있는 미술교육이 미래의 영원한 예술가로 남게 하는 것이다. 만일 특기교육만을 편협하게 지도한다면 아무런 미적 의지가 없는 기능위주의 사람이 될 것이다.

미적 재능은 80%정도의 후천적 영향과 노력이 좌우된다고 본다. 결국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므로 어렸을 때 먼저 풍부한 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교사나 주변사람들이 최선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항상 격려해 주거나 칭찬을 해 주는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동화를 통해서 본 지역별 분석

1) 환경 조건과 아동화

지능과 정서 같은 것은 아동자신이 가지는 요인 외에 환경적 영향도 중요하다. 그 환경적 영향은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지리적 조건과 기후는 자연적인 영향이겠고 전통이나 가치관 문명이 관련되는 영향은 문화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벨로(Belo)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동들의 인물표현에 관해 고찰한 결과, 발리에서는 어른들의 가급적 전통적 법칙대로 가면이나 인형 등을 만들고, 그리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도 다른 작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⁰⁾ 거기에서의 미술의 역할이란 발리의 미술적 문화 가치를 전수시키는 엄격한 목적 하에서 개성이나 변화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발리 전통 소재에

10) M. Mead and M. Wolfenstein, Childhood in Contemporary Culture, (Chicago:Univ. of chicago, 1955), pp.52~69.

서 비롯된 ‘양식화’가 되어버린 상을 그려낸다고 한다. 또한 그곳의 아동은 4~5세까지는 다른 아동들과 유사한 회화표현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곳 문화에 따른 형태와 기법을 좇아 그린다고 한다. 그래서 4~5세 이후부터는 그 사회문화의 영향에 지배된다는 것이다.

“볼펜스타인(Marta wolfenstein)은 프랑스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문화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프랑스 아동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히 통제되어 있으며 섬세하며 패턴화된 특징을 지닌다.”¹¹⁾ 이것은 프랑스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재미있는 시간보다 근엄하고 근면하며 조직적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 및 문화적인 환경요인은 지각의 기제를 형성하여 아동미술 본연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적 영향은 어린이의 표현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미술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아동의 그림에 한 장면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살아간다는 의미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발달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아동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양한 양식의 적응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진보를 하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되며 이 시기에는 아동의 태도 관습 행동의 형이 형성되고 개성이 형성된다. 이 형성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며 환경과의 접촉에서 확립된다. 그러므로 아동이 정서적으로 만족을 얻으면서 독립성 사회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환경에 따른 아동의 그림을 비교하여 표현 특징·차이를 밝히기 위해 제주지역 13점과 남원지역 10·금악지역 10점을 분류해보았다.

11) M. Mead and M. Wolfenstein(1955), pp.52~69.

제주시지역 1-1과 1-2인 제주지역의 특징인 돌하르방과 곤충채집하는 모습을 표현한 제주지역의 환경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7~9세 아동은 반복적인 표현 속에서 환경에 대한 개념을 찾는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¹²⁾

1-3도 시원한 산과 함께 어린이들의 소풍을 가는 즐거운 모습을 잘 표현했다.

1-4, 1-5, 1-6은 주제를 바다로 배경 하여 각기 다른 모습을 표현했다. 1-4에서 용두암을 주제로 주위의 배경과 사람들의 활동모습을 잘 표현했다. 1-5는 제주지역의 관광모습을 윈드 쇼핑으로 잘 표현해 고난도의 표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1-6은 바다 속에서의 상상화를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식사하는 준비과정을 잘 표현해 그림연습을 많이 하는 아동이다.

1-7, 1-8, 1-9, 1-10은 제주지역의 특징을 표현한 그림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여행과 놀이 중심으로 표현했다. 특히, 1-8은 자전거도로의 특징인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 아기자기한 사람들의 동작과 자전거의 모습도 그림을 자주 그리고 있는 아동인 그림이다. 1-10의 그림은 제주의 벚꽃축제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의 인물들이 개성 있게 표현했고 다른 아동들이 쉽게 표현하는 인물이 아닌 독창성이 강하다.

1-11, 1-12, 1-13, 1-14의 그림들은 아동들이 자주 그리고 있는 상상화다. 색감표현이 다양하고 밝게 표현되었다. 설문지 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듯 노랑과 파랑색깔을 많이 쓰고 있다. 상상화 또한 특이하고 다양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위와 살펴 본바와 같이 시내지역 아동들은 문화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가족들과 놀러 많이 갔었던 것 같다. 소재가 다양하고 미술지도도 많이 받아 의도 성이 있는 그림도 있고 사람들의 표정과 동작을 다양하게 그렸다. 미술재료도 크레파스 하나만 의존하지 않고 물감, 색연필들의 재료도 같이

12) 장현신 : “주거환경에 따른 아동화의 표현 특징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학위논문 (미간행), 1991, p.12.

쓰고 있다. 그림도 화 지에 꼭 차게 그리고 있으며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다. 시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그만큼 문화혜택과 이곳저곳에 놀러 다녔던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남원지역은 바다와 한라산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2-3, 2-4와 2-6은 자기 경험했던 것을 기억으로 표현했으며 순수하고 자연 색을 많이 쓰고 있다. 나머지 그림들은 우주와 바다에 대한 상상화 그리고 만화를 이용한 상상화를 표현하고 있다. 순수하면서도 동화내용을 많이 표현했다.

위에 살펴 본바와 같이 시 지역에 나타나는 인공적인 미보다는 자연미를 많이 그렸으며 자기 생각을 많이 그리고 있다. 산과 바다 그리고 상상화(우주와 바다)에 대한 자기의 꾸밈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금악 지역은 제주지역의 약간에 산간지방으로 높은 곳에 가야만 바다 가 보인다.

그림을 살펴보면 3-1은 우주에 대한 상상을 표현했으며 나머지그림들은 금악 지역만의 특징인 산과 자연풍경 그림을 많이 표현했다. 즉 자기가 사는 모습위주로 꾸밈이 없고 자연과 흙 냄새를 풍기는 풍경을 주로 많이 그렸다.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산에 대한 아름다움 모습을 많이 표현했다.

2) 구도의 표현

초등 1·2학년 아동들에게 있어 구도표현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었거나 그림을 자주 그리지 않는 아동에게는 구도에 대한 개념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구도의 형태도 그림을 얼마나 자주 그리는지 미술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아동들에게는 그들이 자주 표현하는 구도가 있는데 어른과 같은 예술적

인 구도가 아닌 그들 특유의 구도이다. 구도의 형태도 연령이 발달해 감에 따라 점차 달라져 간다.”¹³⁾

본 연구에서 아동화를 조사한 결과 기선을 그린 기본적 구도는 모든 지역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시내지역은 13개 작품 중 11개 84.6% 금악 지역은 10개 작품 중 8개 80% 남원 지역은 10개 작품 중 6개 60%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 아동이 84.6%로 금악과 남원지역 아동보다 기선사용이 우세했고 남원지역 아동이 60%로 약간 저조했다. 제주시 지역아동이 시외지역 아동보다는 그 만큼 잘 그리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고 미술의 구도표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배경처리

아동들은 화면에 그리고 싶은 주제를 우연적 우발적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남은 여백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다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백의 화면은 그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의 한 요소이기도 한다. 바탕의 여백을 존중하던 동양에서도 요즈음은 서양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바탕을 하얗게 남겨둔 것과 바탕을 뾰뾰하게 배경처리 한 두 그림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바탕이 하얗게 남겨둔 것은 자유스럽고 청순한 멋을 풍겨주고 바탕을 뾰뾰하게 한 것은 그림다운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이 담겨 보여질 수 있다. 주제를 중심으로 남은 여백의 처리정도는 제주시가 바탕을 뾰뾰하게 한 것으로 그림다운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고 금악과 남원지역은 바탕색을 여유 있게 칠해 청순한 멋을 풍겨주고 있다.

13) 김 정, (1989), p.277.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시 지역은 그림에 대한 의도 성이 강하고 소재와 기법이 다양하지만 시외지역으로 갈수록 꾸밈이 없고 자연을 많이 그리고 있다.

제주시, 남원, 금악 지역의 차이점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해 보았다.

제 주 시	남 원	금 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성이 있다. ○ 개성이 너무 강하다. ○ 표현기법이 다양하다. ○ 재료가 다양하다. ○ 색깔이 다양하다. ○ 자연풍경보다는 인공적인 (꾸며진) 자연이 눈에 띈다. ○ 경험화를 많이 그렸다. ○ 사람들의 표정과 동작을 다양하게 그렸다. ○ 바탕색을 뽀뽀하게 칠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하다. ○ 자기생각을 그린다. ○ 개성이 있다. ○ 자연 색을 많이 쓴다. ○ 여백이 있다. ○ 인물들의 동작이 다양하지 않다. ○ 바탕색이 하얀 여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하다. ○ 자기가 사는 모습 위주로 그리고 있다. ○ 자연 색을 많이 쓴다. ○ 주변환경을 많이 그린다. ○ 여백이 있다. ○ 인물들의 동작이 다양하지 않다 ○ 바탕색이 하얀 여백이 있다.

제 주 시



1-1 곤충채집



1-2 돌하르방과 함께



1-3 소풍을 가요



1-4 용두암 바다 풍경



1-5 바다에서 놀아요



1-6 바닷속 식사



1-7 유채꽃 밭에서



1-8 자전거 타기



1-9 말타기



1-10 벚꽃축제



1-11 공룡 친구들



1-12 상상화



1-13 우주전쟁

남 원 지 역



2-1 별성



2-2 우주여행



2-3 풍선축제



2-4 여행가자



2-5 우주



2-6 어린이날



2-7 바닷속 여행



2-8 우주의 세계



2-9 우주나라



2-10 인어공주

학교 중앙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금 악 초 등 학 교



3-1 우주



3-2 산에서 노는 줄라맨



3-3 줄라맨 마을



3-4 산에서 재미있게 놀아요



3-5 산에서 놀아요



3-6 소풍가요



3-7 소풍



3-8 즐라맨과 홀맨



3-9 봄소풍



3-10 나는요 선생님 사랑했어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설문지를 이용한 지역별 분석

제주지역 아동들이 미술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 1, 2학년 186명과 시외지역 초등학교 1, 2학년 29명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하였다.

아동들이 미술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아동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문항을 5지 선 답으로 하여 선택하고 기타란에 그 외 해당사항이 없거나, 하고 싶은 말을 쓰게 했으나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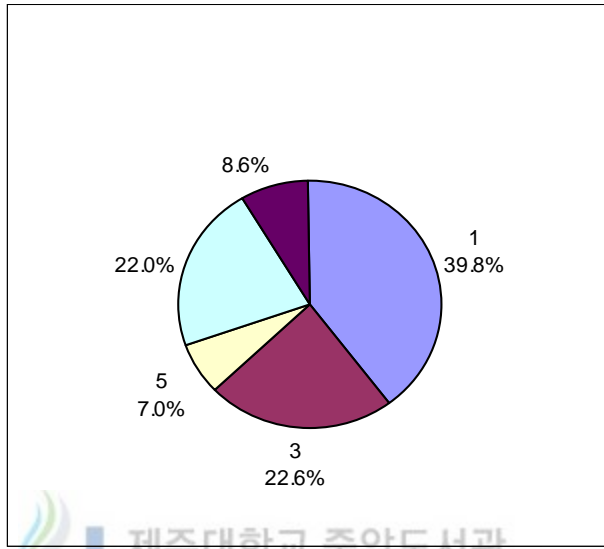
1.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리기를 하십니까?란 질문에 시내지역 아동 주1회가 186명중 74명이 답해 가장 많고 시외지역은 주5회 29명중 10명이 답을 해 가장 많았다. 남녀로 비교해보면 시내지역과 시외지역 남자들은 주1회가 많고 여자들은 시내지역은 주1회 95명중 32명이 답해 33.6% 많고 시외지역은 주5회 29명중 10명이 답해 34.4%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아동들이 미술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거쳐 아동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항 문항을 주었다. 아동들이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기를 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5가지 문항을 질문 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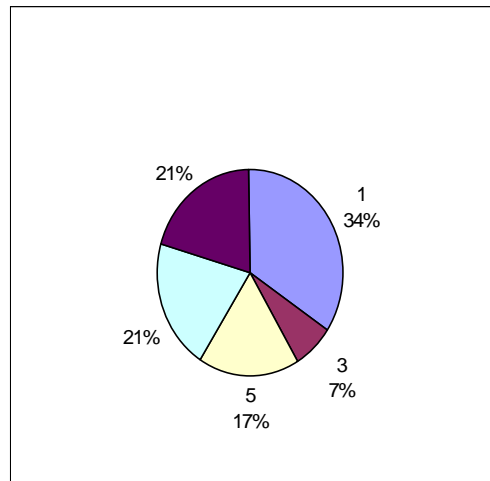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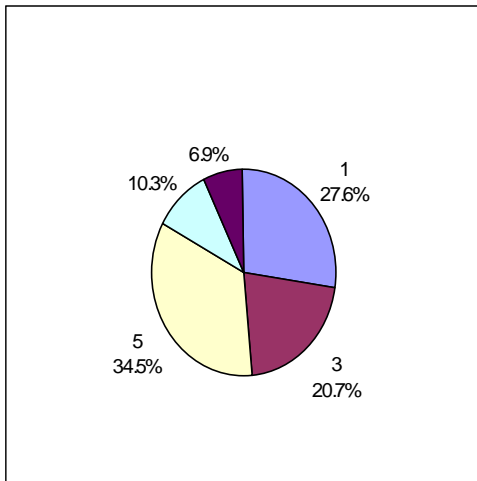
그 결과 아동들은 그리기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고 기타란에 그리기를 하지 않는다면 답도 예상했었지만 매일 그린다면 답을 쓴 아동도 여러 명 있어 생각 외로 그리기를 좋아하고 있고 아동들은 그림에 관심을 갖고 직접 집에서 자주 그리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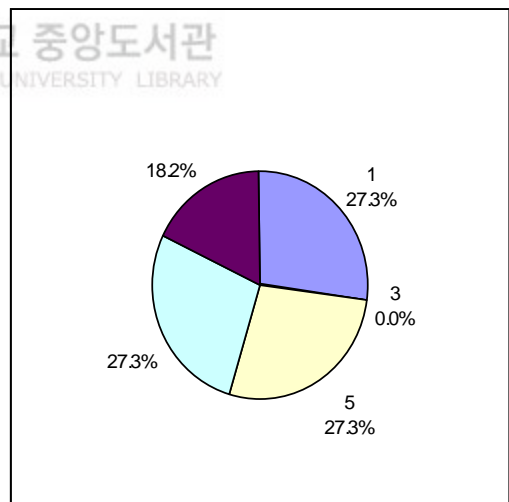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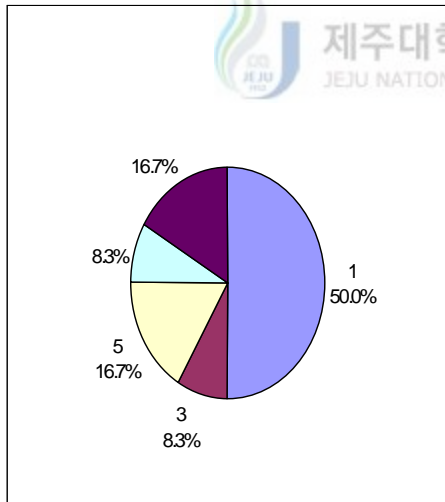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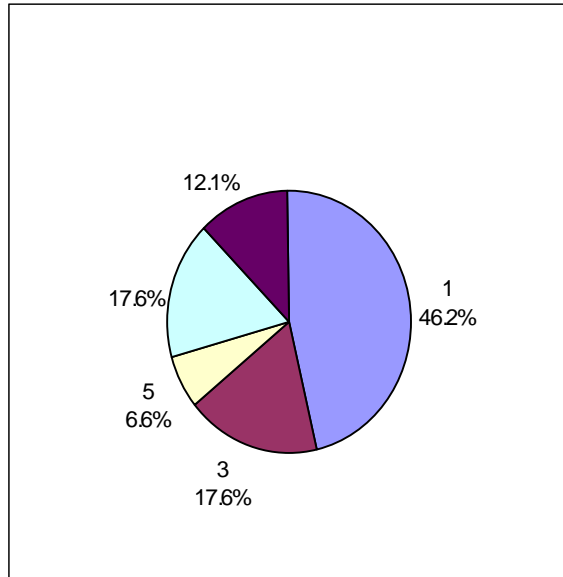
요즘 아이들은 일부 유치원에서라든가 초등학교에서 그림일기를 쓰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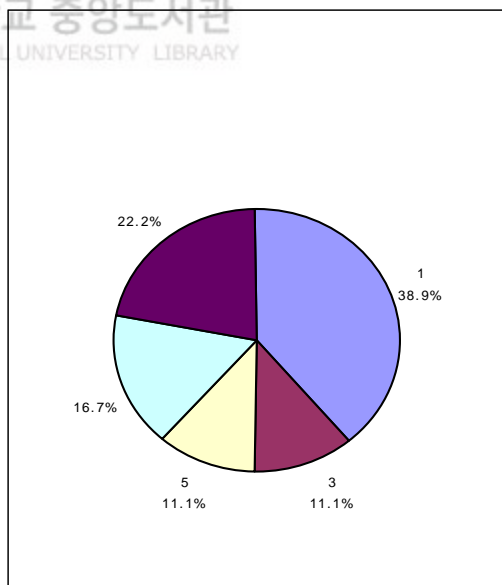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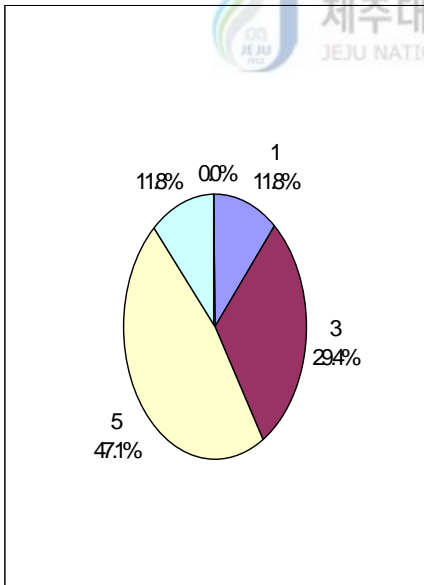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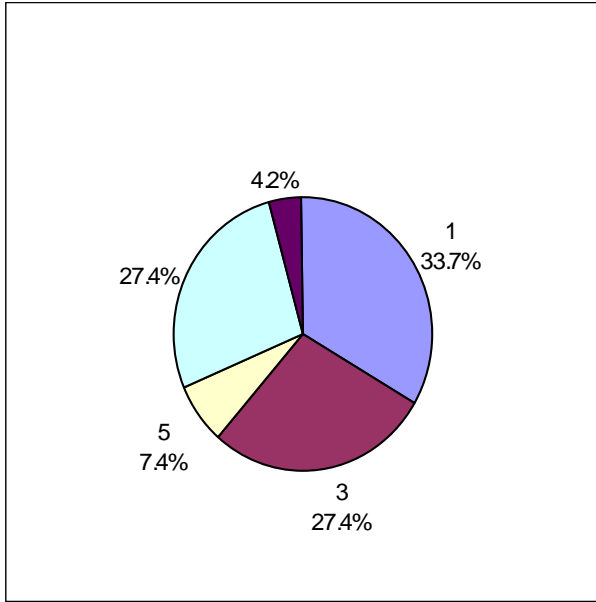
하고 학교에서 환경을 꾸민다든지 수업의 일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하므로 그리기를 자주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그리기를 할 때 어떤 것을 즐겨 그리십니까? 란 질문 다섯 문항 (① 주변환경 ② 동화내용 ③ 상상화 ④만화 ⑤ 기타) 중에 시내 권, 시외 권, 남녀 차별 없이 40%이상이 상상화를 선택하였다. 왜 상상화를 즐겨 그리느냐 질문에 아이들은 그냥 요, 재미있으니까, 그리기가 쉬우니까 등 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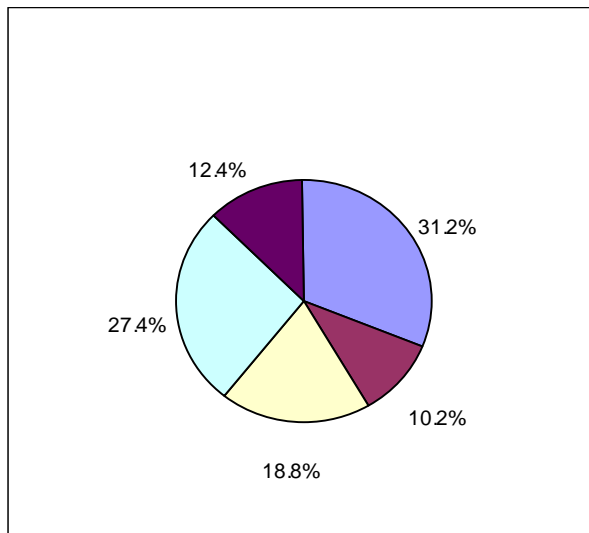
초등 1·2학년이라 아직은 다섯 문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설명을 붙여 이야기 해주어야 했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때가 가장 좋다는 애들이 많았지만 부연 설명 없이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주로 아동들이 그렸던 그림을 자주 그리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주변환경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보여 주었을 때와 동화내용을 들려주고 그 내용에 따른 그림 자료를 보여 주었을 때는 아동들이 상상화 보다 더 좋은 그림들이 나왔다.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냥 놔두기보다는 지도하는 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야기를 해 준다면 아동들의 그림을 더욱 다양해지고 활기가 넘친다. 특히 주변환경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직접 보여주고 주위에 가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그림을 그린다면 아동들의 그림을 더욱 생생한 실감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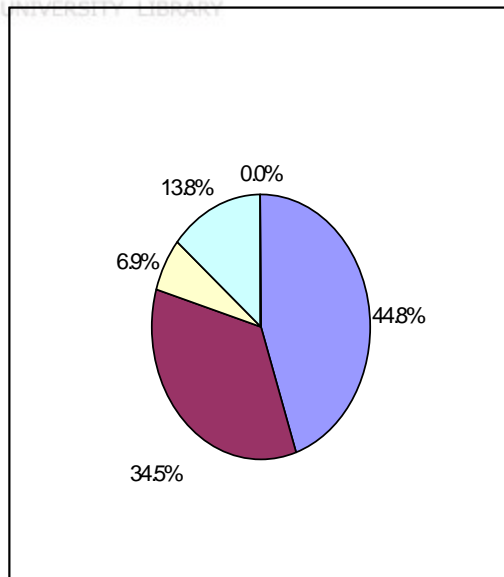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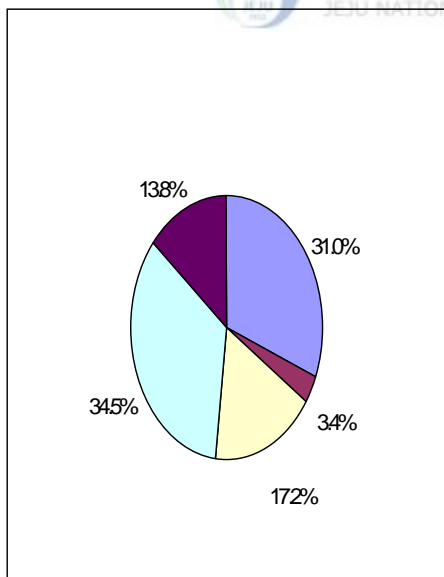
3. 색칠할 때 어떤 색깔을 즐겨 쓰십니까? 란 질문에 시내지역 아동들은 노랑, 파랑, 초록 순으로 나타났고 시외지역은 파랑, 노랑, 초록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로 비교하면 시내지역 남자아동은 파랑, 초록, 노랑, 시외지역도 파랑, 초록, 노랑 순으로 나타나 시내지역과 시외지역 남자아동들의 색깔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아동의 경우 시내지역은 노랑, 파랑, 초록 시외지역은 노랑을 가장 즐겨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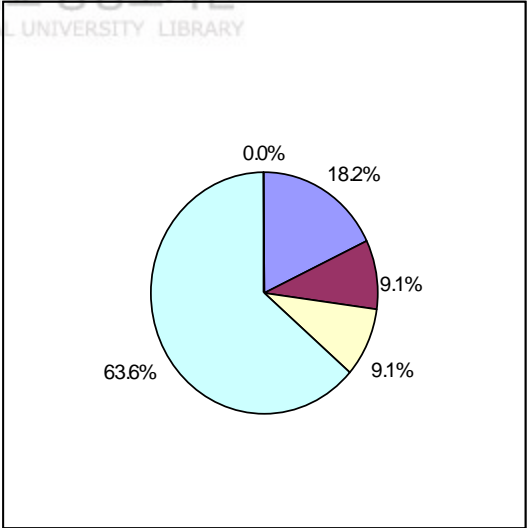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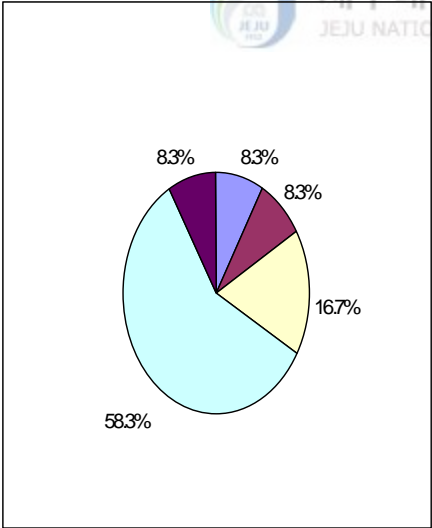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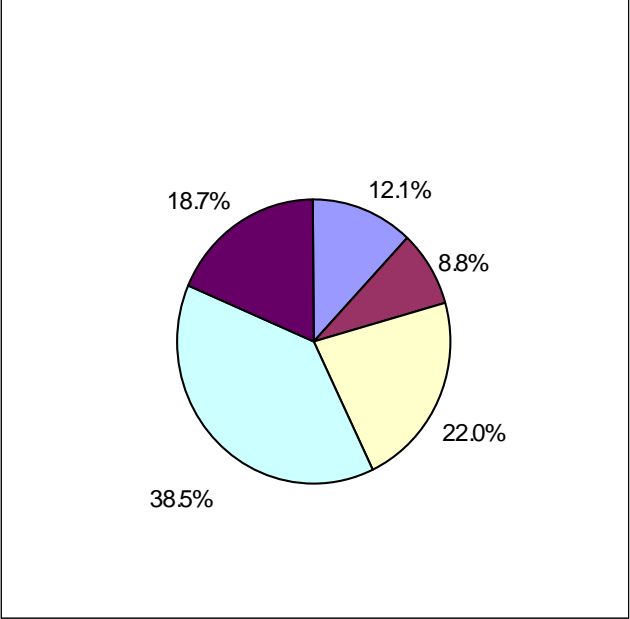
이 결과는 김정희의 조사에서 한국아동 색채 량은 남아가 파랑 색을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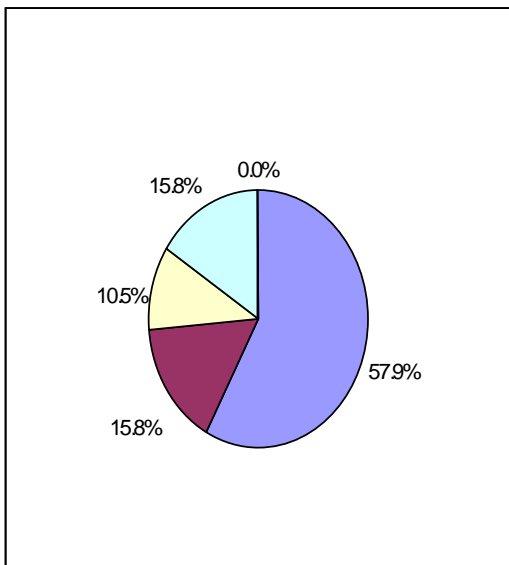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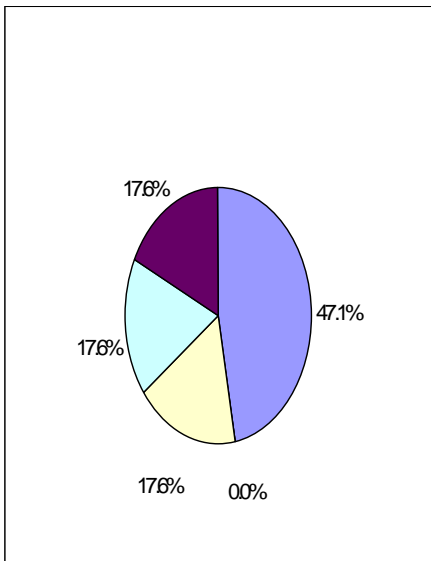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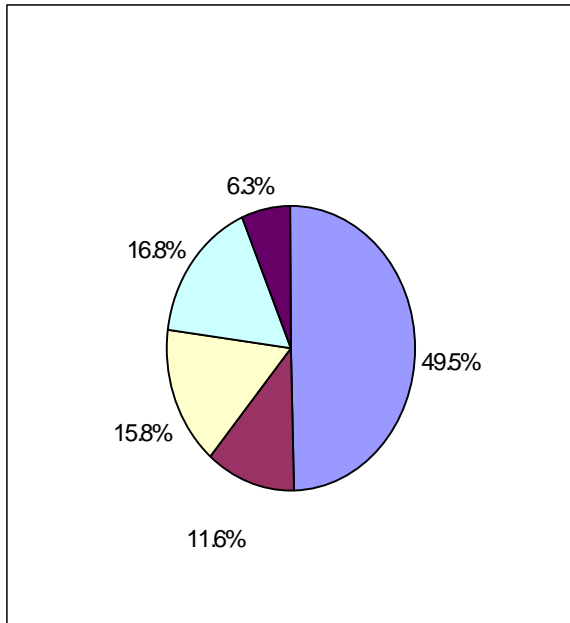
많이 사용한다와 일치하였고 여아의 빨강은 일치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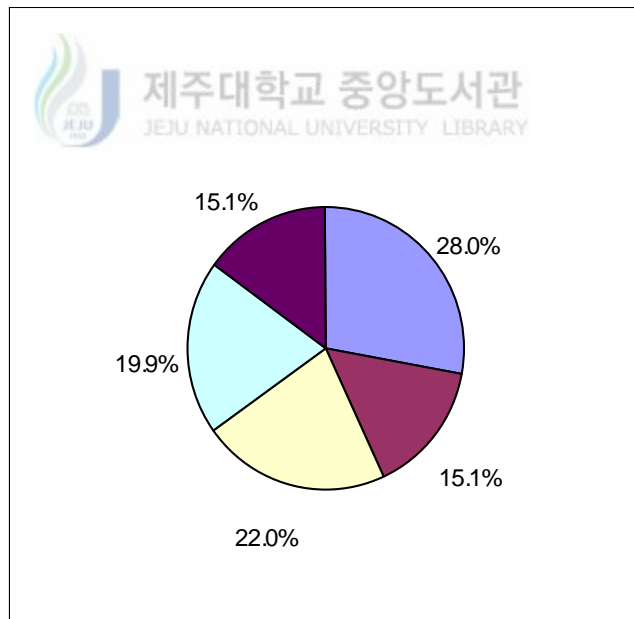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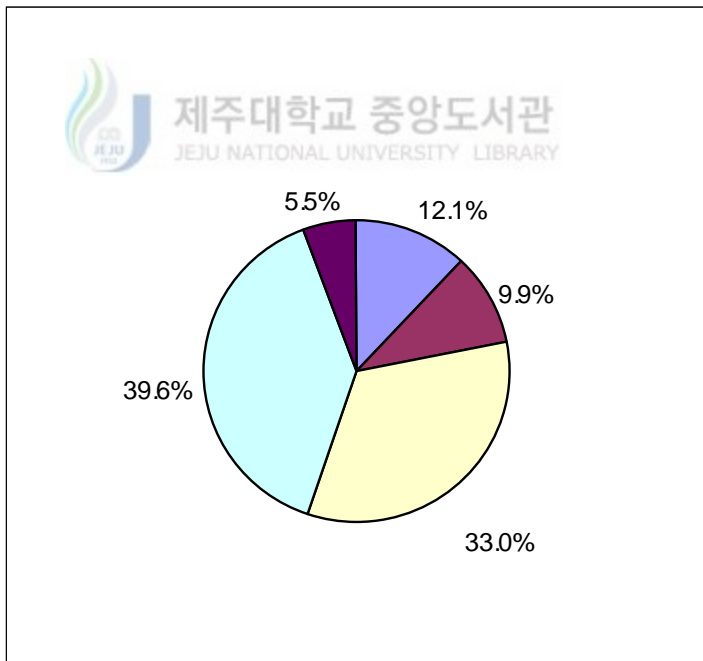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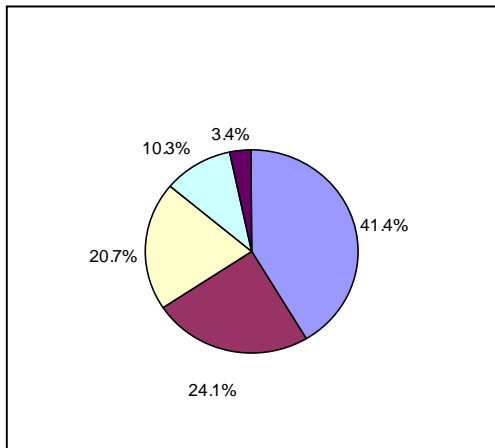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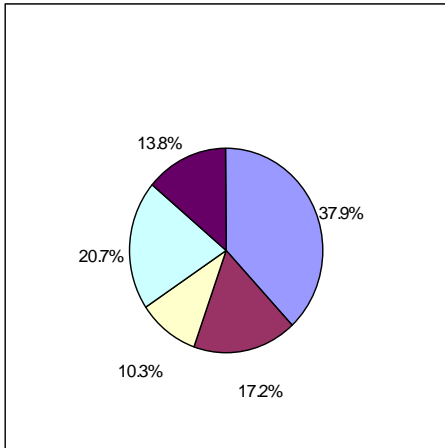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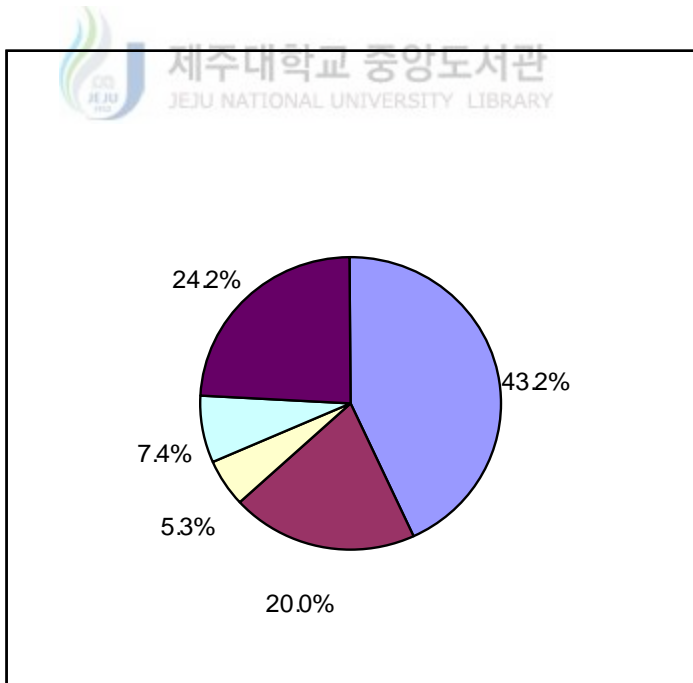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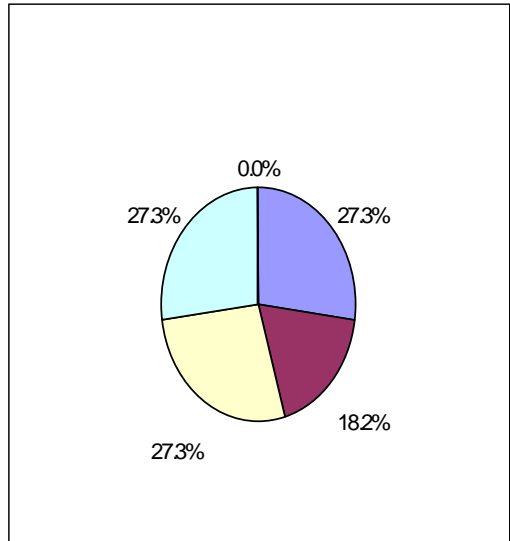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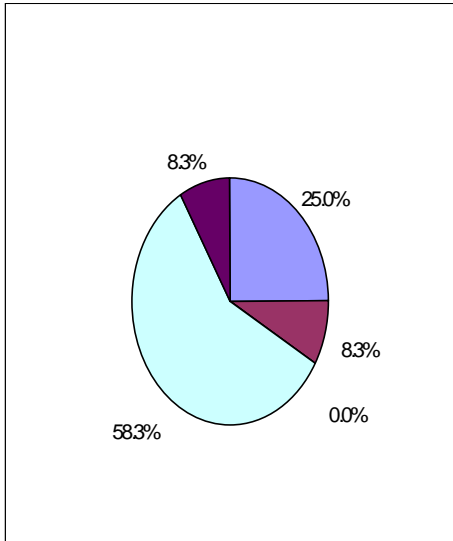
4. 좋아하는 옷 색깔은 시내 권 노랑, 초록, 파랑, 시외 권 노랑, 파랑, 빨강 순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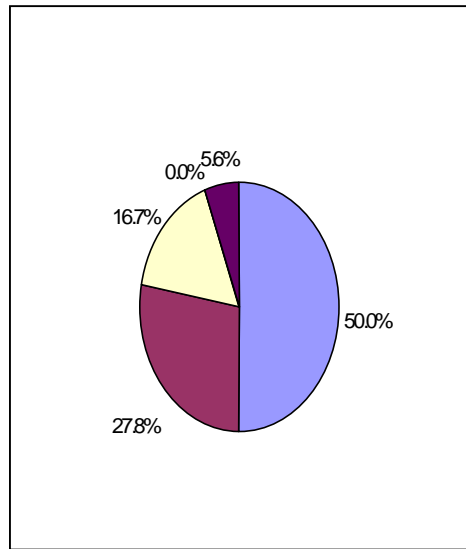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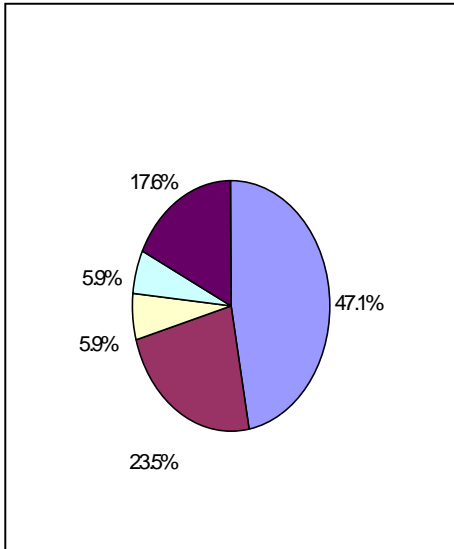
남녀로 비교해보면 시내 권 남자는 파랑, 초록, 노랑 순 이고 시외 권은 파랑, 노랑, 초록 순 이었다. 이것은 남아들은 즐겨 쓰는 색이랑 좋아하는 옷 색깔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여아 같은 경우 시내 권 노랑, 분홍, 빨강 순 이고 시외 권은 노랑, 빨강 순 이다. 여기서 즐겨 쓰는 색과 좋아하는 옷 색깔에 기타 란에 여아들 분홍색을 강도 있게 써넣은 것은 남아에게는 볼 수 없는 여아 특유의 색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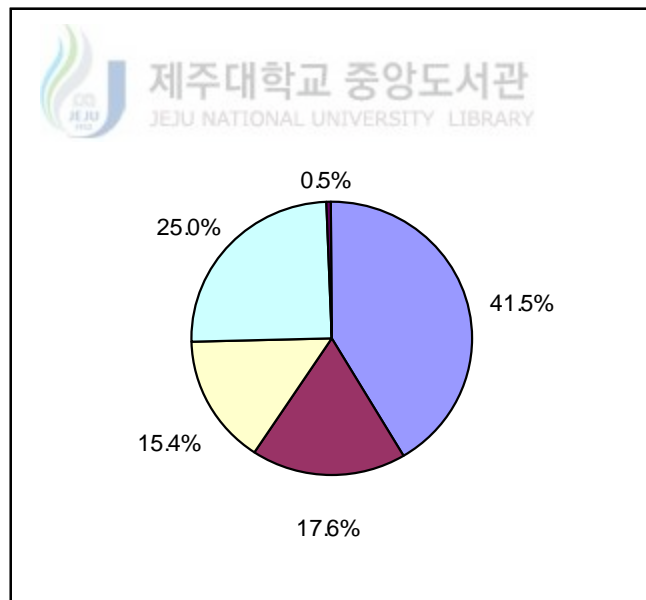
점차적으로 색의 다양화가 옷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에는 남자들이 옷 색깔에 대해 그저 담담했지만 요즘 아동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옷 색깔에도 민감해지고 있다.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색 감각이 생겼다고 본다. 색 감각은 옷에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거리환경에도 다양해지고 있어 현대인들이 미적 감각이 다양해지고 미술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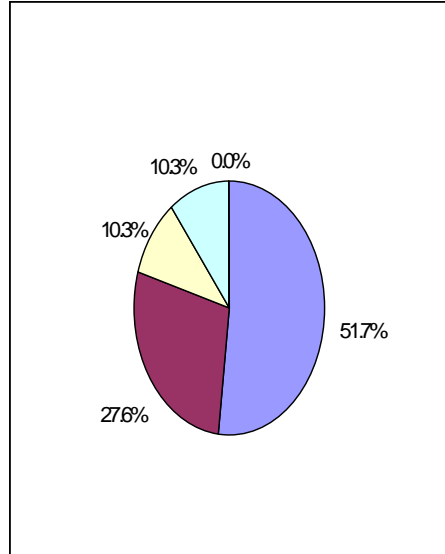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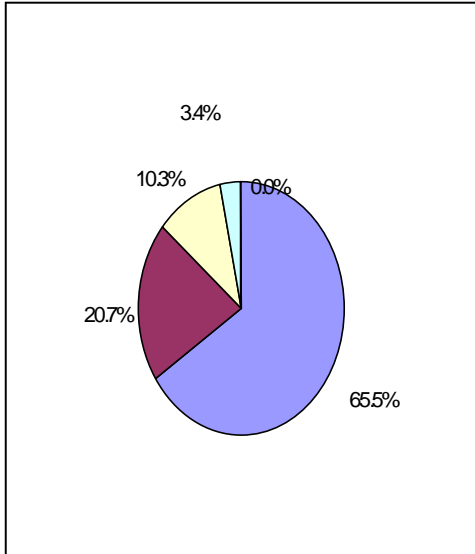
5. 그리기 도구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십니까 란 질문에 시내 권 시외 권 아동들은 대체로 크레파스 중심으로 사인펜 색연필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시외 권 아동들은 물감을 잘 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내 권 남녀가 크레파스 다음 물감 사용비율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들은 미술 재료 하면 대부분 크레파스를 많이 생각한다. 그만큼 미술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미술재료에 대한 경험 부족이라 생각된다. 대부분 학교에서도 초등 1·2학년은 크레파스만 사용하

는 곳이 많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 내용에 따라 여러 미술재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다면 더욱 미술에 대한 관심과 재미도 한층 있을 것이다. 사인펜, 물감, 색연필, 파스텔, 요즘은 수채화 색연필과 매직 물감 등 다양한 미술기법과 재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림을 그리고 난 후 핑거 페인팅을 어느 한 부분에 사용하거나 색 모래와 톱밥재료를 이용해 자기가 표현한 그림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미술이 곧 놀이 미술, 창작미술, 열린 미술이 될 것이다.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미술재료와 미술기법을 더하면 더욱 흥미 있고 재미있는 미술로 거듭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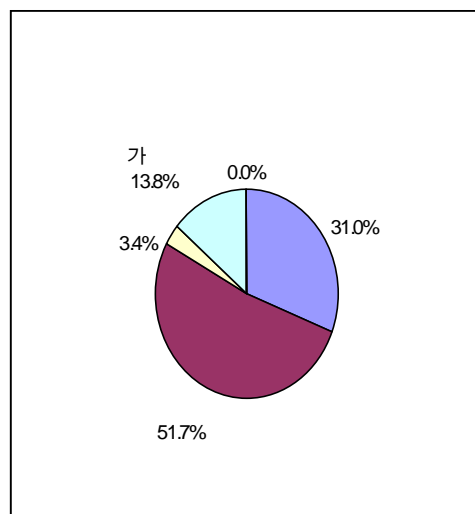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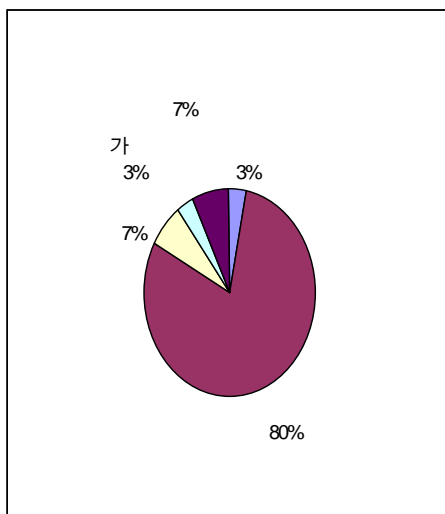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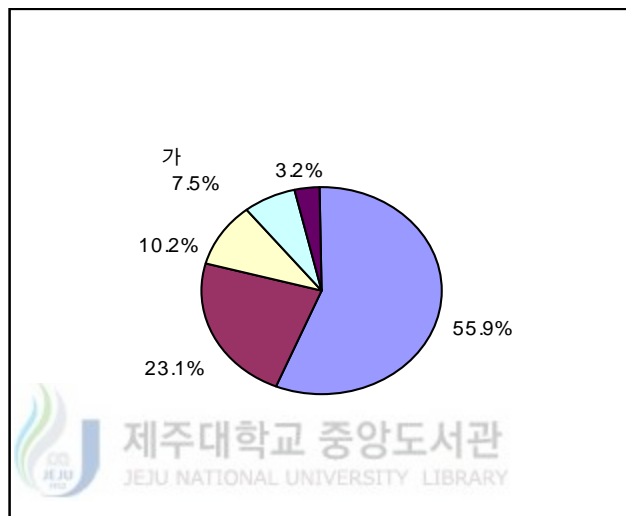
6.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란 질문에 시내지역을 아파트, 단독 빌라 순 이고 시외지역은 단독, 빌라, 기타 순 이었다.

시내지역인 경우 권은 아파트가 우세한 반면 시외지역은 단독이 우세하다. 주거의 형태는 가변적인 가치, 이미지, 지각 그리고 생활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주택의 주거환경이 서로 다른 인간관계 및 사회적 공간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라느냐에 따라서 발달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양자는 아파트 아동들이 다른 주거의 아동보다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며 학교수업을 마친 후 빠른 귀가를 꺼리는 것은 혼자 있는 동안에 고층건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이다. 그리고 독특한 놀이를 싫어하고 또래집단과의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거의 고층화 및 폐쇄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가져온 결과라고 주거형태에 따른 아동의 정서면을 피력했다.

이렇게 아동과 주거환경과의 모든 관계는 아동의 발달 및 행동양식, 성

격, 대인관계, 정서적 분위기 창조적 자주적 놀이 및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어떤 지역과 환경에서 자라는가에 따라 미술의 관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즉 미술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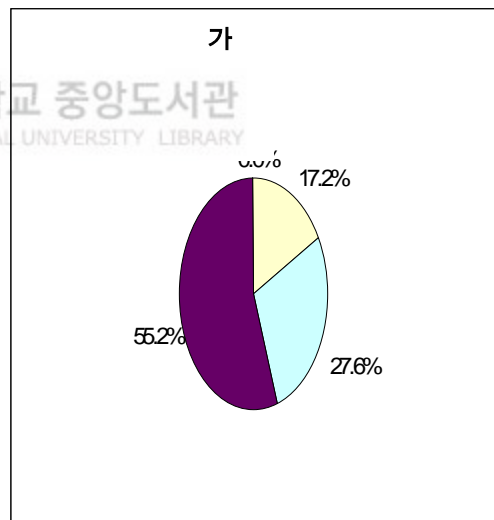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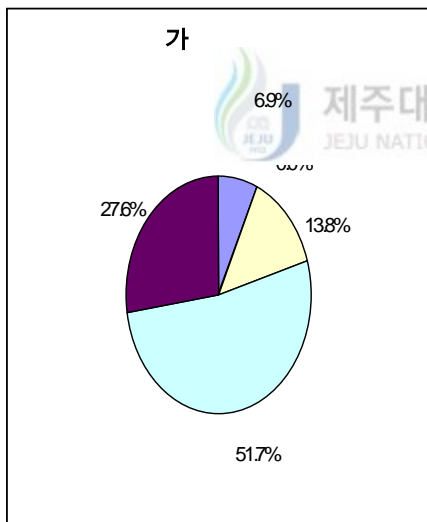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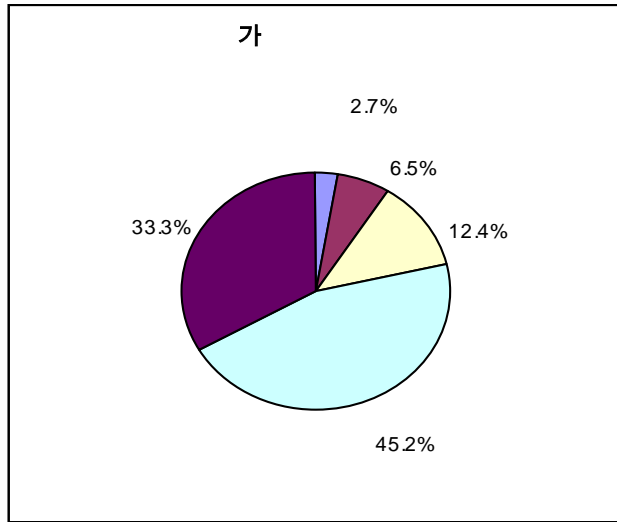


7. 다음은 집안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집안에 미술작품이 있는지 없는 지을 알아보았다. 집안에 미술작품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시내지역은 186명중 84명이 내 작품이 집에 있고 한국화가 23명으로 12.3%가 답을 했고 서양, 동양화 순으로 있었다.

나머지 62명 33.3%는 자기작품도 미술작품도 없었다. 자기작품을 빼면 186명중 21.5%만 집안 미술작품 있는 것이다.

시외지역은 29명중 15명이 내 작품이 집에 있고 4명이 한국화 2명이 동양화 그 외 8명 27.6%가 집안에 미술작품이 없다고 답을 했다. 자기작품을 빼면 20.6%만 집안에 미술작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지역에서 이름 있는 화가의 작품이 집에 걸려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설문지 응답자 중 초 1·2학년 아동들이 서양화가 무엇인지 동양화가 무엇인지, 한국화가 무엇인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어야 했으며 자기작품이 집안에 있는 아동도 대부분 학원에 다녀서 전시했던 그림을 집안에 걸려 놓은 것이었다. 대부분 집에서 자기 아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재미있어서 이 그림을 액자를 해 걸어 놓아야겠다는 부모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마음은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는 부모도 흔치 않았다. 이런 점에서 미술학원에 보내서 1년에 한번 아동 그림을 전시회를 보고 아동그림을 다시 자기 집안에 한·두 작품을 걸어놓는 일은 참 보기가 좋은 것 같다. 이에 더 나아가 미적 감각을 높이고 유명 화가들의 그림도 하나쯤 집안에 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제주지역도 예술의 공간으로 활기가 넘칠 것이다.



8. 자기작품이 있는 아동 중 시내지역이 7세 때 22.5% 42명과 8세 때 22% 41명이 답을 했고, 시외지역 7세 때 48.2%인 14명이 답을 했다.

미술학원에 보내는 아동들 대부분이 6·7세 이고 초등학교는 1학년 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7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1학년 수업이 그리기로 표현하는 것이 많아 취학 준비과정으로 생각해 보내는 부모가 많다보니 미술학원이나 미술과외를 하는 부모가 많았다. 미술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는 부모도 미술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다 잘한 뒤 약간 미술이 쳐진다 싶으면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수업의 일부분을 잘하기 위해 미술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아동보다는 미술이 하고 싶어서 배우는 그런 아동들이 제주지역의 미래에 예술의 섬 도시로 이끌 주인공이라 본다.

9. 좋아하는 미술화가가 있습니까? 질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없다고 했다. 시내지역은 55.3% 시외지역은 51.7%가 답했다. 대체로 보기 문제를 대해 이야기 해 주었을 때 택하기로 했다. 시내지역은 피카소 20.9%, 레오나르도 다빈치 15.6% 순으로 나타났지만 시외지역도 피카소가 34.4%로 좋아하는 화가로 선택했고 나머지 화가는 5% 이내로 저조했다.

화가들에 대해 아동들은 생소해 했다. 여러 번 설명을 해 주어야 그때야 표시한다거나 대부분 아동들이 누군데요. 좋아하는 화가가 없어요 라고 답했다. 그만큼 아동들은 미술화가에 대해 관심이 저조했다. 주변에 화가들의 그림이 없었고 화가들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었다. 제주지역도 화가 그림에 대한 박물관을 지어 아동들에게 개방해 자주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화가들에 대해 생소해 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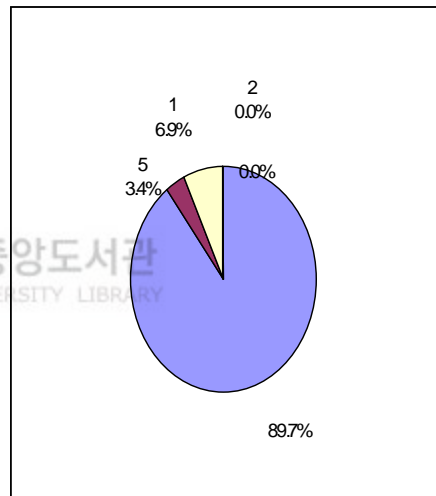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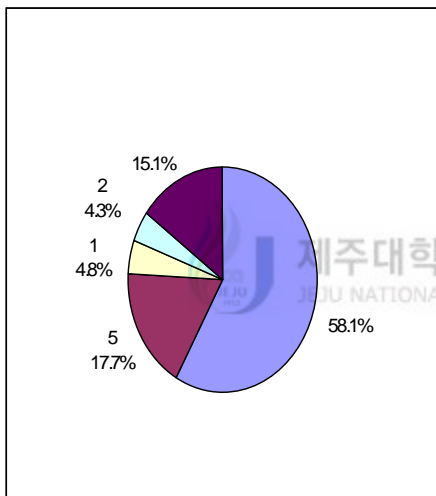
외국화와 한국화에 대한 그림을 분류해서 전시회 겸 박물관에 걸어 놓아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리라 본다.

10. 미술학원을 다닙니까(다닌다·안 다닌다) 다닌다면 몇 일 정도 다닙니까?

제주 초등 1·2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주1회 이상 그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기를 주로 하고 있는 반면 미술학원을 어느 정도 다니는지 설문조사 해보았다.

시내 186명 아동 중 33.8%인 63명인이 다니고 있고 66.1%인 108명은 안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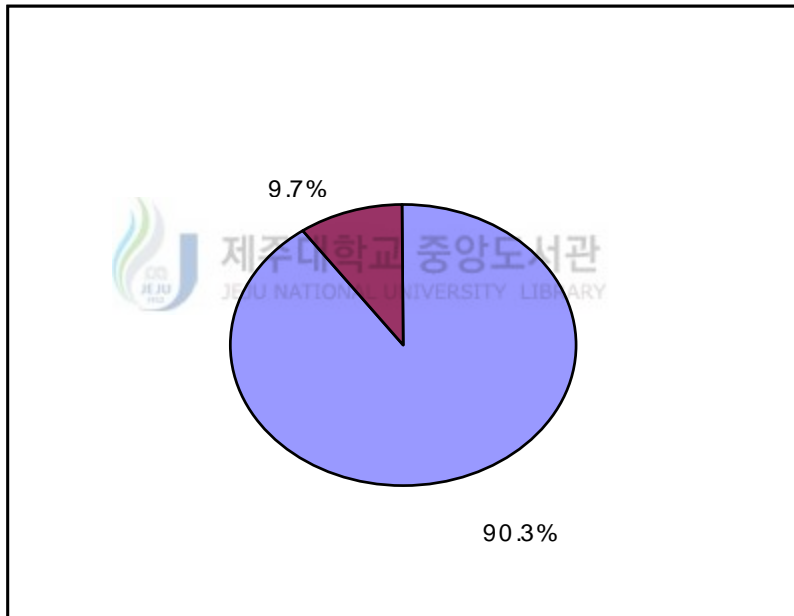
시외지역인 경우 29명중 10.3%인 3명이 다니고 있고 89.6%인 26명은 안 다니고 있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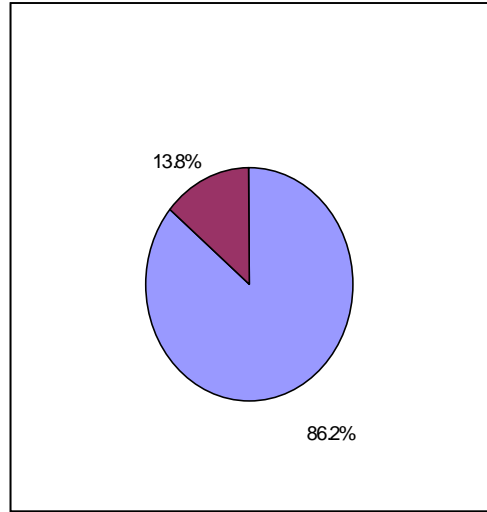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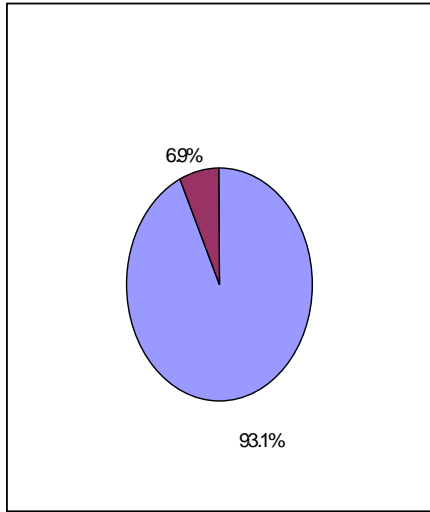


그리기를 좋아하고 자주 그리지만 학원에 다니는 아동은 생각 외로 적었다. 지금은 안 다니지만 몇 개월 정도 다녔었다는 아동들이 많았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강기간이 짧지만 짧은 것에 비해 미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11. 만화책을 좋아하십니까?(예·아니요) 제주지역아동들이 어느 정도 만화책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했다. 위1번 항에서 시내지역

은 상상화 다음으로 만화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조사되었고 시외지역인 경우 남자는 상상화 다음 만화를 그린다고 조사되었다. 그리는 것은 시내 권은 27.4% 시외 권은 13.7%이지만 만화책을 좋아하는 것은 시내 권이 186명중 168명인 90.3%가 좋아했고 음악은 29명중 27명이 93.1%가 좋아했다. 남원지역은 29명 중 25명이 답해 86.2%가 응해 다소차이는 있으나 모든 지역 아동이 만화책에 관해 높은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있다.





요즘은 만화 학습 지, 만화 동화, 만화 위인전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냥 읽기는 어렵고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만화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재미있게 읽고 있었다. 글로만 나와 있고 어렵고 재미없어 읽지 않고 내 버려 두는 것보다는 만화로 나와 있고 재미있어 한·두 번 여러 번 읽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본다. 어려운 명심보감, 삼국지도 만화로 되어있으면 아동들은 재미있어 여러 번 읽고 있었다. 만화가 책을 멀리 하는 아동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의 설문지와 아동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아동들의 미술관심도는 매우 높다. 시내 지역과 시외지역의 아동들이 여러 면에서 차이는 보이지만 보편적으로 전지역 아동들 대부분이 미술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시외 지역 아동들의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미술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내 지역 아동들이 크레파스, 물감, 사인펜, 연필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 설문지의 내용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개성 있는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다.

좋아하는 옷 색상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노랑 색이 우세했으나 시내 지역 여아 중 몇몇은 분홍, 주황 등 밝고 따뜻한 색상을 선호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좋아하는 만화 조사에 있어서도 시내 지역 아동들은 TV에 반영되는 만화 외에 빨강 머리 앤, 작은아씨들 등 책으로 읽혀지는 세계 명작에도 몇몇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몇 가지 내용 면에서도 아동들이 접하는 다양한 문화 생활권이 미술에 대한 아이들의 표현 활동과 흥미 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술교육은 인간교육으로서 생명 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이 나라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제주 지역별 아동들의 미술관심도의 아동화와 설문지에 대한 지역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화에 있어 주제선호는 제주시지역은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 다양한 주제를 그리고 어디로 여행을 갔었던 것, 누구랑 놀러 갔었던 경험 등을 많이 그리고 있으며, 개개인마다 개성이 아주 강하다. 남원아동은 자기 생각과 동화내용을 많이 그리고 있다. 금악 아동들은 소재가 단순하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을 많이 그리고 있다.

2. 색채 사용에 있어 제주시 지역은 다양한 색채와 색을 진하게 색칠했으며 원색계열을 많이 사용했다. 남원과 금악 지역은 초록, 파란색을 많이 쓰고 있다.

3. 미술재료에 있어서 제주시 지역은 색연필, 물감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금악과 남원은 주로 크레파스를 사용하고 있다.

5.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리는가에 대한 질문은 지역별 아동들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주1회 이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색깔선호도에서 남자는 제주시 파랑(38.5%), 남원 파랑(63.6%), 금악 파랑(58.3%)으로 우세하고 여자는 전체적으로 노랑이 우세했는데, 제주시(49.5%), 금악(47.1%), 남원(57.9%)으로 나타났다.

7. 미술작품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화는 제주시 12.4%, 금악은 13.8%, 남원은 17.2% 이고 서양화는 제주시 6.5%, 금악과 남원은 0%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안에 미술작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기 작품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제주시 45.2%, 금악 51.7%, 남원이 27.6%로 조사되었고, 작품이 없더라는 답변도 제주시 33.3%, 금악 27.6%, 남원 55.2%로 나타났다.

8. 좋아하는 화가로는 제주시, 금악, 남원지역이 50% 이상이 없다고 조사되어 미술화가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다.

9. 만화책을 좋아합니까란 질문에 80~90% 이상이 모두 좋아한다 만화책의 흥미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지역별 아동들의 미술관심도를 조사해본 결과 전지역이 미술 그리기를 좋아하고 있으며 흥미 있어하고 있다. 제주시, 남원, 금악 지역의 아동화의 특징을 비교한 결과 제주시 지역의 아동의 그림은 내용을 복잡하게 묘사하며 다양한 색깔로 화려한 표현을 하고 잘 그리려는 욕구가 담겨있고 개개인마다 개성이 강했다.

금악과 남원지역 아동의 그림은 문화의 혜택을 주는 복잡성보다는 거침이 없는 자기 생각과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을 그리는 그 나름대로의 개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주 지역의 아동화를 비교할 때 색깔의 사용, 색의 농도, 주제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제주시, 남원, 금악 이라는 지역 환경이 갖는 서로 다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은 아동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아동의 정서표현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 환경 적 요소가 갖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미적 발달 요인이나, 정서함양의 저해요인을 잘 검토하여 아동이 창조적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장을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적이고 기교에서 편중된 교육에서 벗어나 환경의 특수성을 살린 전인교육으로서의 바람직한 미술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고 본다.

IV. 참고문헌

- 장현신, 1991 [주거 환경에 따른 아동화의 표현 특징 연구] , 숙명 여자
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1988 [그림에 의한 아동심리의 분석] 서울 : 교육과학사.
- 김 정, 1990 [아동의 미술교육연구] 서울 : 창지사
- 김춘일, 1990 [아동미술론] 서울 : 미진사
- 박옥련, 1998 [색채의 이론과 활용] 서울 : 형설출판사
- 양경희, 1997, 1994 [21C기를 위한 열린 아동미술교육] 서울 : 학지사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미술교육학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정대식, 1991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서울 : 미진사
- 조목하, 1977 [아동화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운문화사
- 최영훈, 1985 [색채 학 개론] 서울 : 미진사
- 파버비렌지 김화중 옮김, 1990 [색채심리] 서울 : 동국출판사
- 하용득, 1986 [한국의 전통 색과 색채의 심리] 서울 : 명지출판사
- 루돌프 아르하임, 1988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서울 : 기린원
- 강순균, 1991 [아동의 색채선호와 행동특성 관계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김미재, 1985 [색상별 이해 및 색채 혼합능력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유은주, 1979 [한국인의 색채감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1985 [학령 전 어린이의 색 놀이를 통한 색 표현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김영학, 1977 [미술의 교육] 서울 : 향서각
- 김일진, 조성기, 1975 [주거학] 서울 : 동명사

- 아모스 라트포트, 1985 [주거형태와 문화] 이규목(역), 서울 : 열화당
정문자 外, 1984 [창자공예 지도], 서울 : 한국 방송 통신 대학 출판 부
조목하, 1977 [아동화 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운문화사
김진규, 1986 “아파트 가정과 주택 가정의 환경차에 따른 아동교육문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보애, 1983 “아동화의 지역간 표현능력 및 유형에 관한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양자, 1983 “주거형태에 따른 아동의 행동양식과 가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M. Mead and M. Wolfenstein, 1955, Childhood in contemporary culture,
Chicago:Univ of chicago.



(Summary)

The Study of A Degree of Children's Concern in Art
According to Region in Cheju

- Centering on Children of 8-or 9-year old in Urban and Rural area -

Jung Min Kyung

Art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or by Professor, **Kim Youg Hwa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concern about natural environment is increasing more than cultural environment in Cheju, and above all the surrounding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factor. Surroundings is a basic area of society to children. The emotions of Children are affected by surroundings - a basic area of society to them - as a living sp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rvey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in children's drawing which is their emotions and desires.

The object of study lies in analyzing the degree of concern in art and understanding the emotional ability of children and their drawing according to regional environment.

In method, Cheju area was divided into two, urban(cheju city) and rural(Keumak, Namwon) area. Subjects were elementary students of 8-or

9-year old. Their drawing an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analytic standard and compiled statistics by perc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preference of them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wo area. In contents, artificial beauty and living experiences were expressed intensively in urban area, Cheju city. Children in Namwon depicted their own idea and their pure heart. In Keumak, they drew a picture of their daily life and their surroundings.
2. In the color expression, children in urban area(cheju city) used various deep colors and primary colors many times. But in rural area(Keumak, Namwon) they painted a picture green or blue color series and the color was lighter than in urban.
3. In composition, children in urban filled a drawing paper tightly and drew actions in various way. While rural children drew an action simply and drawing paper blanked.
4. In questionnaires(children's concern in art) most of them, urban or rural, were very fond of drawing. They replied that they liked to draw an imaginary picture, a cartoon, a fairy tale and their surroundings. Specially they liked comic books 90.3% in Cheju city, 93.1% Keumak, and 86.2% Namwon. Therefore we know most children in Cheju have an great interest in comics.
5. In concern about color, boys had a preference for blue color while girls for yellow color.



In this survey children are fond of and interested in drawing a picture all the area of Cheju. In the case of Cheju city, they depicted many contents and expressed splendidly by complex and various colors. Their pictures filled with a desire to paint well and their individuality was expressed intensively.

In this study comparing children's drawing according to region in Cheju, there are differences in expression, in using colors, in thickness and in theme. So that children are affected by different environment in their own regio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of regional environment and examine the factor of advance in art and of obstruction in cultivating the emotions, we prepare a environmental place for children's creative expression.



8. 내작품이 있다면 몇 살때 그린것입니까?

- ① 5세 ② 6세 ③ 7세 ④ 8세 ⑤ 9세

9. 좋아하는 미술화가는 있습니까(있다·없다) 있다면 누구를 좋아합니까?

- ① 피카소 ② 레오나르도 다빈치 ③ 밀레 ④ 샤갈 ⑤ 기타:

10. 미술학원을 다닙니까(다닌다·안다닌다) 다닌다면 몇일정도 다닙니까?

- ① 주5일 ② 주3일 ③ 주2일 ④ 주1일 ⑤ 기타:

11. 만화책을 좋아 하십니까(예·아니요) 좋아한다면 어떤 만화책을 좋아합니까?

- ① 탑블레이드 ② 팡팡 ③ 명탐정코난 ④ 디지몬 ⑤ 기타:

